

비리 축구협...김진국 전무 사퇴로 덮어질까

■ 잘못 없다면 그...자진사퇴 왜?

황령협의 직원 위로금 퇴직 논란되자 명확한 의혹규명 없이 책임자만 문책 축구인들 "자정노력 안하고...또 졸속" 대한체육회 "사흘간 축구협 특검감사"

대한축구협회가 절도 미수와 황령 협의가 있는 직원에게 1억5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진국 전무이사(가운데)가 27일 사퇴했다. 김 전무는 협회를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비리 행위를 감싸거나 조사를 방해했다는(협회 노조)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없다. 김주성 국제국장은 2009년 이후 공식이던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축구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마뱀 꼬리 자르기

김 전무의 사퇴와 함께 황령 파문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관련 책임자를 문책했지만 모든 의혹이 명쾌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비리 직원에게 상식 밖의 위

로금을 주며 퇴직시킬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나 협회와 비리 직원이 주고받았다는 합의서 내용, 비리 직원이 사직 압력을 받아 오히려 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꺼내 든 협회 임원들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등 내부 비리에 대한 내용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

협회는 반성의 기미도 없다. 김 전무 이외에 누구도 책임지거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 '도마뱀 꼬리 자르기'에 다를 아니다.

또 다른 비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김 전무의 사퇴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김 전무의 일은 참으로 안타깝다"던 조중연 협회장은 "정확한 협회 입장을 알려 달라"는 물음에는 묵묵부답이었다. 협회 내 분위기는 싸늘하다. 상당수 협회 실무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말로 깨끗하다면 쉬쉬하고 덮을 것이 아니라 비리 직원에 대해 형사고발 등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면적인 개혁만이 살 길

대한축구협회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더욱 확대될 경우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심지어 국회 차원의 감사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충격적인 사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해 1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메머드급 체육단체이자 비영리 법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가장 깨끗해야 할 단체가 가장 부도덕한 단체로 곤두박질쳐서는 곤란하다.

협회는 거액을 들여 제작한 컨설팅 자료도 전혀 참고 하지 않았다. 반쪽 했던 일종의 액션 이였을 뿐이다. 무슨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항상 졸속 처리로 위기를 모면해 왔던 협회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 축구인은 "협회가 쓴 소리는 전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해 줄 조언이 없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한 마디로 정리했다. 또 다른 축구인도 "내부 감사도 한계가 있고 허점이 뚜렷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결국 이번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따끔한 외부 감사를 받는 것뿐인데, 정치 권과 김숙이 연계된 협회의 특성상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협회는 이제부터라도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비리 직원에게 거액의 퇴직 위로금을 준 사실이 드러난 대한축구협회에 특검감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체육회는 30일부터 사흘간 협회 회계담당 직원의 황령 협의 및 퇴직 위로금 지급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박지성(오른쪽)이 자신의 기록을 깰 후계자로 이청용을 꼽았다. 이청용은 재활에 매진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이미 늦었나?

FA컵 경기를 앞두고 있다. "영국에 온 뒤 우승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유일한 컵 대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승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다. 잉글랜드에서는 가장 큰 대회 중 하나이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 잉글랜드는 다른 나라에 비해 FA컵이 비중이 크다. 당연히 우승해야 한다."

2006년 독일월드컵은 나에게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갖는 첫 월드컵이었고, 비록 16강 진출은 실패했지만 원정에서 첫 승을 거두는 소동이 있었다. 2010년 남아 월드컵은 원정 월드컵으로는 처음으로 16강 진출을 해냈다.

●내 기록 이청용이 깰 것

-팬유에 입단해서 197경기를 뛰었다. 200경기까지 3경기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많은 경기를 뛰 출 몰랐다. 7년 뛰는 동안 부상도 있었고, 더 뛰어야 할 것 같기도 하다. 팬유의 일원으로 200경기나 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믿기지 않는다. 200경기를 뛰게 된다는 건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후배들이 이 기록을 깰 것이라 확신한다. 특히 (이)청용이가 깰 것이다."

-FA컵 경기를 앞두고 있다. 각오는. "영국에 온 뒤 우승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유일한 컵 대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승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다. 잉글랜드에서는 가장 큰 대회 중 하나이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 잉글랜드는 다른 나라에 비해 FA컵이 비중이 크다. 당연히 우승해야 한다."

-혹시 언론에 바라는 점이 있다. "물어보면 고쳐 주실 것인가. 사생활 기사는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 축구관련 기사는 언제든 환영이다. 비판이든 칭찬이든, 하지만 사생활 기사는 칭찬도 비판도 부담스럽다."

-은퇴 후 등 미래를 서서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계획을 공개해줄 수 있다. "수차례 밝혔지만 지도자 계획은 없다. 아직 고민 중이다. 축구행정이나 다른 일로 한국 축구나 스포츠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 선수생활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른다. 길게는 몇 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2년은 선수생활을 유지할 것이다." 맨체스터(영국) | 김신애 통신원

편집 | 김민규 기자 minkang@donga.com 트위터 @mkkkang



대한축구협회가 비리 직원에게 1억5천만 원의 위로금을 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진국 전무(오른쪽)가 27일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왼쪽은 조중연 회장. 협회는 이날 김주성 국제국장(뒷줄 가운데)을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여민지, 꿈이 이뤄졌다

U-20여자월드컵 개최지 도로 변경 2대회 4위 한국, 극적 본선 진출권

세계무대에 서고 싶다는 여민지(19·함안대산고)의 간절한 꿈이 이뤄졌다. 대한축구협회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8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이던 U-20 여

자월드컵 개최지를 일본으로 변경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우즈베키스탄의 대회 준비, 시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이 덕을 봤다. 어부지리로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원래는 작년 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챔피언십 1~3위에 오른 일본, 북한, 중국과 개최국인 우즈베키스탄이 나가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개최국으로 자동진출권을 확보해 4위를 차지한 한국이 자격을 얻게 됐다. 여민지

는 2010년 트리니다드토바고 U-17 여자월드컵 우승에 이어 다시 한 번 세계 정상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U-20 여자대표팀 감독은 공식이다. 축구협회는 2015년 월드컵 본선 진출을 목표로 여자대표팀 감독과 U-20 감독을 겸임해 운영할 방침이다. 2월 말 여자대표팀의 사이프러스 친선 대회가 끝나면 두 대표팀을 함께 이끌 새 사령탑을 선임할 계획이다.

윤택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 @Bergkamp08

마창요리전문점

저지방·고단백질·고칼슘

누리 세라믹 초벌구이

누리 대구생막창

맛도 최고! 영양도 최고!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그 맛!

누리 대구생막창은 담백하고 쫄깃쫄깃한 그 맛이 일품입니다

세라믹 초벌구이로 한 ...

누리 대구생막창 가맹점 대모집

580만원 비용으로 업종변경

[무이자 및 저리융자 알선가능]

가맹비 無
교육비 無

- ※ 간판 천갈이 초벌구이기 및 요리 전수 및 전반적 관리 까지
- ※ 30년 전통과 노하우로 성공창업 신화를 당신에게 전수합니다.
- ※ 맛의 노하우와 최고의 재료 최고의 노하우를 공개 합니다.

소자본 창업 시장에 강력 돌풍!! 경험, 기술없어도 월수 고수입에 도전 !!

- ★ 초보자라도 본사 시스템으로 충분히 가능
- ★ 신규점포 개발부터 철저한 시장조사후 오픈후 슈퍼바이저 파견교육
- ★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분
- ★ 지역독점으로 확실한 성공사업

메뉴 돼지막창, 소막창, 통갈비, 삼겹살, 갈매기살 외 10여종

문의 1644-1145

www.candibox.co.kr